구광국의
화엄으로 본 보로부두르대탑
1 보로부두르대탑 사상은 무엇일까

▶ 구광국 대표는
경기대 관광전문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으며 '보로부두르대탑에 나타난 화엄사상 연구'로 동국대 일반대학원 응용불교학과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배재대 관광학과 강사를 역임했으며, 현재 아제여행사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보로부두르대탑엔 '화엄경'이 담겼다

현존하는 세계 최대의 불탑을 보로부두르대탑(이하 대탑과 혼용 사용)이라 칭하는 데에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 대탑은 방대하고 다양한 소재를 정교하게 표현하는 예술성, 지정학적인 역사성, 간다라와 안드라 불교미술의 영향을 받은 불교 건축학적 특성, 석가 세존의 이야기와 본생담을 모티브로 제작한 부조상의 종교 미술학적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대승 경전의 불교 사상을 극적으로 조형화한 경전탑으로서 세계 종교 건축물의 으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대탑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언급한 역사적 기록과 구법승들의 언급이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다. 탑의 조성 시기, 조성 목적이 새겨진 석판이나 금석판이 아직 발견되지 않아서 언제 누가 왜 어떤 목적으로 이와 같은 대작 불사를 이루었는지 역사적인 근거 자료가 부재한 상황이다.

그 원인으로 대탑이 건설된 직후 세상에 알려지기 전에 주변 머라피(Meripi)산의 폭발로 화산재에 덮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 보로부두르대탑 전경. 밀교탑으로 알려져 있지만 '화엄사상'이 담긴 탑이다.

현존하는 세계 最大 불탑은 印尼 '보로부두르대탑'
간다라 · 안다라 불교건축, 대승사상 조형화 걸작
1814년 네덜란드 총독 라플즈 발견해 세상 알려
학계 정설 '밀교탑'이나 부조 조각 '화엄경' 담겨

보로부두르대탑은 어떤 탑인가

대탑은 화산재에 덮여 약 1000여 년 이상 잊혀진 후 1814년 네덜란드 동인도회사의 부총독인 토마스 스템포드 라플즈(Thomas Stamford Raffles)에 의해 세상에 알려졌다. 라플즈는 'Boro(위대한)' 'Budur(붓다)'라는 의미를 넣어 대탑의 이름을 지었다. 이 작명이 대탑의 현 이름 '보로부두르(Borobudur)'이다.

대탑의 본래 이름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대탑을 지칭하는 역사적 비문 2개가 발견되었다. 이 중 카랑텐가 비문(Karangtengah inscription)은 824년에 세워진 것으로 당시 사일렌드라왕 사마라퉁가(Samaratungga)의 딸이며 후에 산자야 왕조

왕비가 되는 프라모다와르단니(Pramodhawardhani)가 신성한 건물을 깨달은 경계에 든 분을 뜻하는 '지날라야(Jinalaya)'이란 건물의 개관식을 했다는 기록을 담고 있다. 이 건물이 대탑일 가능성이 있음으로 보고 있다. 또 다른 비문은 트리 테부산(Tri Tepusan) 비문으로 842년에 세워졌는데 카훌룬난(Kahulunnan: Pramodhawardhani)이 기증한 테푸산(Tepusan) 마을은 부미삼바라(Kamūlān called Bhūmisambhāra)라 불리는 곳의 자금과 유지를 위해 세금을 면제한다고 기록하고 있다. 부미삼바라(Bhumi Sambhara)의 'Bhumi'는 '십지', 'Sambhara'는 '언덕'을 가리키는 것으로 10지의 언덕, 깨달음으로 가는 언덕 즉, 보살의 경계를 의미하는데, 이곳이 10층 대탑 보로부두르를 지칭한다고 또한 주장되고 있다. 이 주장들에 근거하여 '지날라야'나 '부미삼바라'가 보로부두르대탑의 본래 이름일 가능성이 상당이 높아 보인다.

1000여년의 긴 시간 후 화산재에서 나온 대탑과 여러 고고학 자료들에 대한 학자들의 열정적인 연구로 대탑의 부조상의 이야기 소재와 내용이 상당 부분 밝혀졌다. 그 중 〈화엄경〉 '입법계품'의 선재동자 이야기와 부처님의 본생담, 그리고 부처님의 일대기를 담은 부조상이 해석되어 종교적 미술적 설명이 가능해졌다. 그리고 대탑의 불교사상적 기능에 대해 여러 방면에서의 해석이 시도됐다.

지금까지 밝혀진 내용을 살펴보면 보로부두르대탑은 대승불교 탑으로 사일렌드라 왕국에 의해 대략 775~835년경 인도네시아 자바섬 중앙 자바의 케두(Kedu) 평원에 조성됐다. 10층 구조로 높이 42m이며, 건축석(길이 25cm, 넓이 10cm, 높이 15cm)이 200만개가 사용됐다.

대탑의 벽면에 부착된 총 1460패널(120cm×90cm/장당) 중에 조각된 부조상은 1212장으로 면적이 600㎡에 달하며, 1층 기단 둘레가 1.2km로 전체 층 회랑 둘레는 전체 약 4km에 이른다.

기단부 위에 1층과 2층은 회랑이 없으며, 3층부터 6층까지는 각 층에 회랑이 있고 안쪽 벽 주벽과 바깥쪽 벽인 난순(欄楯, 돌 울타리)에 불교 경전 이야기가 주요 소재로 부조되어 있다. 1층은 선악의 분별과 권선징악 내용의 부조상이며, 2층은 신들의 이야기, 3층은 부처님 일대기와 본생담 4층 2회랑(주벽128, 난순100)은 〈화엄경〉 '입법계품'의 53선지식을 찾아가는 선재동자 이야기, 5층 3회랑(주벽88, 난순88)은 미륵보살이 선재에게 보리도를 설하는 내용, 6층 4회랑(주벽72, 난순84)은 보현보살이 선재동자에게 설하고 있는 장면의 부조상이 있다. 각 층의 주벽과 난순에 돋을 새김된 부조상은 마치 미술관에 전시된 그림과 같다.

대탑의 불상은 동서남북 4면의 회랑 난순 외벽에 있는 감실과 8 · 9 · 10층 상륜부에 총 504불상이 나누어 모셔져 있다.

보로부두르대탑 연구의 시작

보로부두르대탑이 발견된 이후 최초의 연구자는 크롬(N.J.Kroc, 1883~1945)이다. 그는 네델란드의 인도네시아 식민통치 시절 초대 인도네시아 고고학연구 감독(1913~1916년 활동)으로 보로부두르대탑 복원 사업에 참여했다. 그는 대탑과 인도네시아 고고학에 지대한 관심과 연구 활동을 통해 방대한 자료와 연구 성과를 남겼는데, 그의 보고서 'Barabudur(1927)'에서 대탑이 금강계만다라 구조로 된 밀교탑이라 주장했다. 그 후 제자인 보쉬(F.D.K. Bosch, 1887~1967), 폰테인(Jan Fontein, 1927~2017), 하카타(Hikata Ryuso, 1892~)등이 많은 학자들이 그 학설을 받아들이고 뒷받침하면서 대탑이 밀교 만다라탑이란 주장이 공식화돼 가는 분위기가 되었다.

이로 인해 보로부두르대탑과 관련된 여러 박물관과 관련 서적들 그리고 대탑 내 안내판에서도 이들 연구 결과들이 그대로 받아들여져 공표되고 있다. 그 결과로 대탑의 3~6층까지의 동서남북의 불상과 8~10층 불상에 금강계만다라 방위 불상의 명호를 사용하고, 대탑의 평면도를 밀교금강계 만다라와 배대해 공식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대탑이 금강계만다라를 재현한 탑이라고 주장하기에는 여러 문제가 대두된다. 이유인즉, 대탑의 10층 구조와 불상 그리고 수인 등이 금강계만다라와 완전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있고, 4회랑 주벽 부조상이 '보현행원찬'이라는 주장은 밀교탑이 아니라는 의미를 내포한다. 보현행원찬은 화엄부 경전이기 때문이다. 또한 〈화엄경〉 '입법계품'으로 조성됨이 확실시 되는 2회랑 주벽과 난순, 3회랑 주벽과 난순과 서로 수행 단계인 계위적 측면에서 상응의 문제가 대두된다.

〈화엄경〉에서 52수행계위는 경전의 핵심적 구조임을 간과할 수 없다.

탑은 근본적으로 한 경전의 사상과 세계관, 불타관을 표현하는 시각적이며 입체적인 경전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보로부두르대탑에 금강계만다라와 '보현행원찬' 그리고 〈화엄경〉 '입법계품' 등 여러 사상이 동시에 적용되었다고 보기에는 상당히 오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보로부두르대탑은 많은 부분에서 '화엄경 탑'임을 들어내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학계에서는 밀교탑이란 주장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대탑이 화엄대탑임을 밝히기 위해서는 대탑이 가지고 있는 외형적 구조적인 특징을 〈화엄경〉의 품 구성의 구조적 특징과 사상적인 성격과 의미를 서로 배대해보는 작업이 중요하다. 또한 대탑 각 방위의 불상의 배치의 의미와, 각 회랑의 부조상 내용분석과 각 회랑간의 유기적 관계를 파악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은 밀교 위주의 인도네시아 불교문화 해석을 극복하고, 해상 실크로드 왕국들과 당시 인도네시아 영향권의 동남아 왕국들에 대승경전인 〈화엄경〉의 유통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불탑은 부처님이다. 불탑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은 부처님 설법을 정확하게 듣는 것이다. 〈화엄경〉을 설법하시는 부처님의 법문을 왜곡 없이 듣기 위해 보로부두르대탑이 '화엄경 탑'임을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아제여행사 대표〉

상담환영합니다!
빙의제거와 신기운 제거는 최고 전문가(빙의 전문의)를 만나야 문제 해결이 됩니다!!

[상담대상]
◉ 빙의와 신기운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 한 개인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 빙의 기운에는 사람, 동물, 식물, 기타 여러가지 기운이 몸속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몸속에 들어오면 여러가지 신체적 장애, 정신적 이상증세를 일으킵니다.
◉ 특히 초등, 중등, 고등, 대학생이 빙의와 신기운에 노출되면 인생 전체가 망가집니다! 반드시 제거 및 벗어나게 해주어야 인생이 달라집니다! (영리하고 똑똑했던 자녀가 어느 시점 이후 갑자기 학습능력 저하, 우울증 걸리고 방콕하고 이상행동 하는 경우)
◉ 연예인, 연극인, 영화배우, 탈렌트, 가수등 마음이 여리고 순수하고 감정, 감성 중심 직업을 가지신 분들은 빙의와 신기운에 잘 접속되고 벗어나면 좋지만 그렇지 못하면 인생 전체가 불행해집니다! (예 : 만성우울증, 가위눌림, 불면증, 공황장애, 공포증, 불안장애등에는 반드시 빙의가 접속되어 있습니다!)
◉ 다 그런건 아니지만 직업상 시신을 자주 접하는 사건 현장 담당 경찰업무 하신분, 119대원, 소방업무 종사자, 장례식장 종사자 등 심약하신 분들은 빙의에 접속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 : 가위눌림, 악몽자주꿈, 불면증, 망자가 꿈에 자주 나타나는 경우, 외상후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경우, 몸이 무겁고, 만성 피로감등)
◉ 이상행동, 어느 시점 이후 부터 과거와 매우 다른 행동, 습관이 있는 경우, 병원에 오래 다녀도 낫지 않은 경우등
◉ 희귀병 (병원에서 낫지 않은), 조현병, 분노조절장애는 100% 빙의로 인한 것입니다! (감정기복 매우 심함, 묻지마 폭행, 과격한 행동 등)
◉ 직업상 묘이장, 파묘작업 많이 하시는 분들 건강이상, 정신이상 증세, 가정불화(의처증, 의부증 심함), 잦은 우환, 이상행동 하는 경우
◉ 여러번 천도재, 굿해도 효과 못보신 분

◉ 빙의전문의로서 정직과 신뢰와 꾸준한 사후 관리로 빙의 환자와 함께 문제 해결로 집중해 갑니다!
◉ 원격치유가능 (환자직접 오지않아도 됨) ⇨ 최고 전문가만 가능
◉ 문제해결, 증상해결 중심으로 상담 ◉ 전생빙의치유, 마스터과정수료
◉ 20여년 빙의, 신기운 천도 경력 노하우 갖춤
◉ 증세가 오래 되었거나 심한 경우는 일정기간 간격을 두고 천도정성과 사후 관리를 꾸준히 받으면서 가야 완전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 (원격사후관리 가능)

※ 전화 · 대면상담은 무료입니다!

제주불교금강선원 (빙의천도, 신기운천도 전문 상담원) ☎ 064-746-0789 오시는길 : 제주도 제주시 삼무로 47 3층

현대인의 지친 삶을 위한 쉼터

바쁜 일상, 속도에 쫓기며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스트레스로 인해 지친 삶의 연속이다. 그러다보니 자신이 주인으로 살지 못하고 종속적인 삶 속에서 혼란과 두려움 뿐이다.

어떻게, 무엇에 의지해야 하나?

마음치유 · 심신수련 · 쉼 터

빙의, 신병, 우울증, 불면증, 화병, 중독, 스트레스,
가정 · 사업문제, 심령치유, 소원성취기도, 장기요양

한반도 시작, 땅 끝 해남 견성원에서
새로운 삶의 기운을 받아 가세요!

수행도량 견성원 010-8208-7836

사주명리 / 점술 개인지도 · 애동제자 환영